
연구·학습윤리에 대한 인지도 분석

홍진근*, 이정기*, 오유석*, 박선영*, 하정철*

Cognition Level Analysis for Research-Learning Ethics

Jin-Keun Hong*, Jeong-Gi Lee*, Yu-Sek Oh*, Sun-Young Park*, Jung-Chul Hah*

요약 본 논문은 B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의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식을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시된 데이터는 B대학 학부생들을 위한 연구학습윤리 교육방향을 수립할 목적으로 연구윤리, 학습윤리에 대한 인지도 설문을 통해 얻었고, 인지도 분석을 통해 학부생들의 윤리의식 수준과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B대학의 윤리교육 가이드라인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연구, 윤리, 학습, 연구부정, 진실성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research analyzed contents in center of awareness of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of B university students. The presented data get from cognition level questions of research ethics and learning ethics in the purpose of establishing educational directions of research-learning ethics for B university students, and recognize ethics awareness level of students, necessity of ethics education from cognition level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will be useful guideline for ethics educations of B university.

Key Words : Research, Ethics, Learning, Research dishonesty, Research Integrity

1. 서론

국내의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은 연구 및 학습윤리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 대학에서 개설되고 있는 대부분의 강좌 특성은 학생들이 미래에 취업할 대상인 기업 현장의 기대와 요구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가지는 것으로 고찰되고 있다. 다변화되고 있는 기업의 현실에서 기업은 대학생들에게 연구 및 학습윤리의 인식은 물론이고, 그 연구윤리 성격에 따라, 적용범위와 현실적인 한계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수요자 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이해도 언급되고 있다.[1-5]

기존 연구에서 이인재는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에서 연구활동의 스펙트럼을 살피고 있으며 연구진실성이 갖는 개념, 그리고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와의 관계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4]. 권복규 등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 연구동향과 관련 윤리지침에서 연구 윤리 문제에 대해 영국, 미국, 벨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접근하

고 윤리적 지침과 윤리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5]. 이재승은 공학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교육내용 및 그 방법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공학윤리 교육 목적을 다루고 있다[6]. 박혜정은 생물 교과서에서 생명윤리 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7], 선우현은 연구자의 사적인 이익 문제와 연구윤리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8]. 한편 구인회는 연구윤리 심의에서 표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리뷰를 한 바 있고[9], 성정민 등은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그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10]. 최경석은 실제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를 살펴보고[11], 조일주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에서 수업모형에 대한 접근을 한 바 있다[12]. 앞에서 고찰된 연구윤리 문제는 연구윤리의 필요성과 함께 실제적인 윤리적인 문제의 사려에 대한 접근, 그리고 전문직에서 윤리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본 논문에서는 학부생들이 연구윤리, 학습윤리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초점

본 연구과제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으로 추진된 결과물임을 밝힌다.

*백석대학교 정보통신학부.

논문접수: 2012년 8월 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8월 20일

을 두고 접근하였다. 일반 대학 학부생은 어떤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2장에서 연구윤리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고, 3장에서 설문분석을 통한 B대학의 연구학습윤리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다. 4장에서 결론을 맺었다.

2. 연구윤리 인식에 대한 이해

이마니쉬-카리 사건(볼티모어 사건)은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연구 진실성을 검증할 필요성을 전 세계에 각성시켰던 사건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로 인해 미국은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목적으로 PHS(보건복지부)에서 연구부정행위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ORI(연구윤리국)와 NIH(국립보건원)에서는 각각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함께 내부 연구 프로그램의 연구 수행 가이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이나 독일도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연구비 신청 대상 연구자나 기관에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위한 서약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영국의 경우, MRC(의학 재단)에서 바람직한 연구실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독일의 경우, DFG(독일연구재단)에서 과학 전문직 자율규제에 대한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바람직한 연구실천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북유럽에서는 부정행위(misconduct) 문제를 부정직성(dishonesty)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부정행위보다 잘못된 연구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테면 덴마크는 DCSD(과학부정직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과학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연구윤리 확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와, 연구기관 및 연구 지원기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연구진실성 검증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윤리에 대한 제반 이해와 관련하여, 많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미국 윤리학자 레스닉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데, 레스닉은 부정행위 방지 목적과 관련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이 12가지 윤리적 행위원칙(정직, 주의, 개방성, 자유, 공로, 교육, 사회적 책임, 합법성, 기회, 상호존중, 효율성,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학

습 윤리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또한 연구학습 윤리교육 문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공학 분야를 포함한 산업분야에서, 기밀 누출 주체와 관련하여, 전직 직원(50%), 현직직원(17%), 협력업체(14%)에 대한 활동도를 조사한 바 있다. 기밀유출 동기와 관련하여, 개인의 영리(61%), 금전유혹(22%)의 순으로, 규모별 기술유출은 중소기업(66%), 대기업(28%) 순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 문제는 보안 이슈를 포함해서, 예비 직장인인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학습 윤리교육 부재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연구학습 윤리교육의 목적은 산업기밀 문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책임성 문제와 사회정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런 측면에서 각 대학의 연구학습 윤리를 주제로 하는 교육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의 주요 대학은 연구학습윤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연구학습부정행위 방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NIH와 NSF 기금으로부터 2009년 559백만달러의 2/3를 지원받아, 온라인 윤리 교육 과정과 학부생을 위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으며(2010. 4. 9, www.thecrimson.com/article/2010/4/9/rese-arch-ethics-training-school), 국내 고려대는 2011년 3월부터 일반대학원에서, 논문대필방지과 논문 작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외 국내 주요대학, 대학원에서 연구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설문분석을 통한 B대학생의 연구학습윤리에 대한 인지도 분석

본 논문의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B대학 소속 기독교학부(74명), 법정경찰학부(88명), 사범학부(49명), 정보통신학부(140명), 보건학부(139명), 기타학부(54명)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조사(544명, 전체 학생 수의 약5%)를 실시한 데이터이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교수 수는 29명이다. 급번 수요조사(문항2~21)에 사용된 설문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에 대한 지식을

과악하고 있는지 여부,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연구노트에 대한 이해, 학습윤리 교육방식에 대한 교육적 효과 이해, 웹 환경에서 연구노트와 학습윤리 교육에 대한 이해, 학생들이 이해하는 개설 대상 교과목의 학점 적절성,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 티칭방식에 대한 이해,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의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에 대한 교육적 기대감, 윤리교육이 제공할 도움정도에 대한 이해, 경진대회를 통한 윤리교육의 효과정도를 파악하는 내용이다.

3.1 B대학 학부별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표 1〉 학부생 평균 연구학습 윤리 인지도 분포(1)

학부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티칭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학생 평균	73	51	53	P/F, 39	64	71	45	50	37	43
교수	79	73	66	2학점, 35	79	58	79	55	52	62

연구윤리에 대한 지식, 필요성 등에 대한 높은 인식과, 성실한 응답태도를 보인 곳은 사범학부로 파악된다. 연구학습윤리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개설교과목에 대한 학점부여방식 P/F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학부의 경우(<표1>,<표7>), 연구 학습윤리, 연구노트에 대한 지식, 필요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연구학습 윤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나 인식 부족의 영향으로 파악되며,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연구·학습 윤리 교육 티칭방식으로 팀티칭을 선호하며, 보건학부의 경우(표8) 학생들이 연구노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설문결과, 연구학습 윤리 교육의 필요성, 개설교과목의 학점부여방식, 팀티칭, 연구노트 활용, 기대효과나 확산, 홍보 등 제반 관련된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흥미로운 것은 연구학습윤리 교육이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들은 “학생들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아주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본 과제 수행 중 교과과정 개발 방안을 검토할 때, 주차별 강의 계획 가운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방안이나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방안 마련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학부생 평균 연구학습 윤리 인지도 분포(2)

학부	학습윤리(%)			윤리교육(%)	웹 효과(%)			기대효과 및 확산(%)		
	교육 방식	학점 부여	티칭 방식		주도	연구 윤리	연구 노트	학습 윤리	기대 효과	확산 도움
학생 평균	42	P/F, 38	56	73	43	43	41	43	48	47
교수	52	1학점, 38	72	45*	65	59	59	90	83	66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웹이나 동영상상을 통한 연구 학습 윤리 홍보, 기대 확산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이 웹이나 동영상상을 통한 연구학습 교육이나 홍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정보통신학부 학생들의 경우(표7) 낮은 반응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연구학습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정보통신학부 학생들이 웹, 동영상 홍보 효과에 대한 응답 또한 낮은 선호도를 가지고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연구학습윤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통신학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윤리교육이 필요함을 반증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표 3에서 교수는 윤리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대학교수진의 지지와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데 반해, 학생들은 학생들의 주도적 참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수들은 연구윤리 부분에 대한 반응도는 높게 나타나는 반면, 학습윤리 부분에 대한 반응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학생들에 비해 교수들은 실천 프로그램이나 경진대회를 통한 기대효과 및 확산 증진에 대한 반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웹 기반으로 연구, 학습, 연구노트 교육에 대한 효과 역시 학생들보다 높게 반응하고 있다.

〈표 3〉 교수 연구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79	73	66	2학점 35	58	79	혼합 55	45	62
티칭 방식	웹 효과			티칭	웹 효과		교육 방식	학점
79,팀	65			79,팀	59		52, 혼합	35,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교수 주도				웹 효과	방식
90	83	66	45				59	팀,72

3.2 기독교학부생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표 4에서 기독교학부 학생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구윤리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 74%, 윤리교육의 필요성 인식 52%,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방식 선호도에 61%, 연구윤리 2학점 부여 선호도에 35%, 연구윤리 팀티칭방식 선호도에 64%이었다.

연구노트 지식에 대한 이해는 모른다가 66%, 연구노트의 필요성 인식에 50%, 연구노트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방식 선호도에 54% 이었다.

학습윤리에 대한 이해는 본인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37%, 필요성 인식에 47%,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방식 선호도에 49%, P/F 형태의 학점부여 선호도에 36%, 팀티칭 방식 선호도에 58%이었다.

윤리교육 성공에 결정적 중요 요소는 학생 주도적 참여에 73%, 웹을 통한 홍보 효과(연구윤리 49%, 연구노트 53%, 학습윤리 50%), 윤리 교육의 기대효과 50%, 확산에 도움이 된다 64%, 경진대회를 통한 확산기대에 긍정적이다 51% 등과 같은 분포로 설문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4〉 기독교학부 학부생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74	52	61, 혼합	2학점 35	31	50	혼합 54	37	47	
웹 효과	티칭 방식			티칭	웹 효과		교육	학점	
49	64, 팀			54, 팀	53		39, 혼합	35,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학생 주도				웹 효과	티칭 방식	
50	64	51	73				50	팀, 58	

설문에 응답한 기독교학부 학생들의 경우, 연구학습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방식을 선호하고, P/F 학점부여 방식, 웹 등의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윤리교육이나, 기대효과, 확산 목적의 실천 프로그램 추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법정경찰학부생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법정경찰학부생들은 학습윤리 의식이 전체학부의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다. 연구윤리의식의 이해와 필요성 인지도는 낮으나 학생주도 요구가 강하다.

〈표 5〉 법정경찰학부 학부생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71	53	49, 혼합	2학점 31	29	45	혼합 51	33	42
티칭 방식	웹 효과			웹 효과			교육 방식	학점
69, 팀	50			48			52, 혼합	35,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학생 주도				웹 효과	방식
48	50	47	66				46	팀, 72

3.4 사범학부생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사범학부생들은 연구윤리의식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기대효과 측면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6〉 사범학부 학부생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86	59	61, 혼합	2학점 31	24	49	혼합 45	37	45
티칭 방식	웹 효과			웹 효과			교육 방식	학점
67, 팀	59			45			43, 혼합	25,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학생 주도				웹 효과	방식
39	47	41	80				43	팀, 57

3.5 정보통신학부생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정보통신학부생은 전체 학부생에 비해 연구윤리 의식과 필요성, 기대효과, 웹 교육효과 등에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정보통신학부 학부생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69	42	55, 혼합	2학점 38	36	43	혼합 54	40	41
티칭 방식	웹 효과			웹 효과			교육 방식	학점
63, 팀	39			36			47, 혼합	33,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학생 주도				웹 효과	방식
39	48	42	66				37	팀, 58

3.6 보건학부생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표 8〉 보건학부 학부생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77	55	39, 혼합	2학점 19	18	42	혼합 42	44	46
티칭 방식	웹 효과			웹 효과			교육 방식	학점
65, 팀	43			46			30, 혼합	18,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학생 주도				웹 효과	방식
49	48	57	80				40	팀, 55

보건학부생들은 연구윤리 의식, 학습윤리 의식, 기대 효과 등에서 전체학부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나 연구노트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하고 있다.

3.7 전체 학부생들의 연구학습 윤리의식 분석

표9를 기준으로 할 때 B대학의 학부생들은 연구학습 윤리의식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전체학부 학부생 윤리의식 인지도 분포

연구윤리(%)				연구노트(%)			학습윤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학점 부여	지식 이해	필요성	교육 방식	지식 이해	필요성
73	51	53, 혼합	2학점 31	27	45	혼합 50	37	43
티칭 방식	웹 효과			웹 효과			교육 방식	학점
64, 팀	43			46			42, 혼합	30, 2학점
기대 효과	도움 정도	경진 대회	학생 주도				웹 효과	방식
43	48	47	73				41	팀, 56

4. 결론

산업체 및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윤리 및 학습윤리 의식 고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환경에서, 본 논문은 B대학의 학부생을 중심으로 연구학습윤리 교육방향을 수립할 목적으로 연구윤리 및 학습윤리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지도 조사 결과는 교과목 개설을 통한 정규적인 윤리교육 과정 개발, 효율적인

교육 방법과 홍보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등에 대한 자각과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연구학습 윤리 교양 교과과정 개설 시에 교수들과 학생들의 이해가 상충/일치되는 부분을 분석하고, 수요기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학의 연구학습 윤리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www.ushmm.org/research/doctors/Nuremberg_Code.htm
- [2] ohsr.od.nih.gov/helsinki.php3
- [3] www.research.umn.edu/curriculum
- [4]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 Vol.21, 2010.
- [5] 권복규, 안경진,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최근연구동향과 관련 윤리지침. 생명윤리정책연구, Vol.1 No.1, 2007.
- [6] 이재승, 공학윤리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내용과 방법. 윤리교육연구, Vol.16, 2008.
- [7] 박혜정, 생물 교과서의 생명윤리교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내석사학위논문, 2010.
- [8] 선우현, 연구자의 사적이익과연구윤리. 사회와철학, Issue 15, 2008. 4.
- [9] 구인회, 연구윤리심의 표준화 필요성에 관한 제고찰. 인간연구, Issue 13, 2007. 7.
- [10] 성정민, 박용덕, 연구윤리교육 필요성 인식 및 영향요인. 한국치위생학회지, 2012.
- [11] 최경석,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사고와표현, Issue 2(1), 2009. 5.
- [12] 조일주, 정보통신윤리교육에서 내러티브기반 실천적 수업모형의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교육연구, 2012.

홍진근



- 학력) 경북대학교 졸업(학사/석사/박사)
- 약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근무, 국가정보원 암호기술 검증위원, 국가암호포럼 안전성평가분과위원, 정보화진흥원 전략기술분과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정부주요기관 평가/전문/심의위원, 백석대학교 정보

통신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보화정책, 연구윤리정책, 금융보안
- 저서 : The Basic of Network Security외3종
- E-mail : jkhong@bu.ac.kr

하정철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LLB), 조지타운대 법대 (석사 LLM), 에모리대학교 법과대학(박사 Juris Doctor)
- 약력)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계약법, 신탁, 언론법, 연구윤리

- 저서 : 신법학개론(박영사)(공저)
- E-mail : jchah@bu.ac.kr

이정기



- 학력)미국 캔사스주립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박사
- 약력)교과부 교육과정(교양소위) 심의위원, 교원양성기관 평가위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건설팅위원, 한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및 교양교육학회 상임이사,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융복합교육과정개발, 대학교육과정균형의문제
- 저서 : 학교교육에 대한 기독교적이해(교육과학사, 공저)
- E-mail : jgedu@bu.ac.kr

오유석



- 학력) 서울대 철학과, 그리스 국립아테네대 철학박사
- 약력)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근무,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E-mail : wingedwords@bu.ac.kr

박선영



- 학력) 이화여대(학사/석사/박사)
- 약력) 삼성서울병원, 예수대학교 간호학부 근무, 한국보완대체요법간호사회 출판이사, 한국보건간호학회/질적연구학회/대한여성건강학회논문심사위원, 대한심폐소생 협회 BLS위원회 위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시뮬레이션 교육, 응급간호
- 저서 : 성인간호학 외 다수
- E-mail : sypark@bu.ac.kr